

# 신안군, 1004대교 주변 편의시설 갖춘 복합쉼터 조성

**익산국토청과 천사복합센터 조성 MOU 체결  
사업비 290억원 투입해 2022년말 완공 예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서남권의 랜드마크인 1004대교에 첨단 장비를 갖춘 관리사무소와 함께 보고, 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센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암태 오도 항 일원에 1004대교를 안전하게 관리할 최첨단 장비와 다양한 편의시설(카페, 전시 및 홍보실, 전망대) 등을 갖춘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신안군에서는 지역 특산품 및 대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섬과 섬 터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천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성진)과 천사 복합센터(가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안=장홍근 기자

천사 복합센터, 천사공원 등에 총 사업비 290억원 투입 2022년말 완공되면 1004대교의 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대교는 이미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리를 잡았고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대교를 넘어 중부권의 ‘퍼플바다정원’, ‘1004섬 뮤지엄파크’, ‘무한의 다리’ 등이 코로나19시대 새로운 언택트 관광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1004대교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업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장홍근 기자



강진군 도암면 행복천사 기부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암면 행복천사 기부릴레이는 지난 2020년까지 총 7천2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아졌다.

/강진군 제공

## 영암, 언택트방식으로 2021년 시무식 가져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방식인 영상으로 대체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도 시무식을 영상으로 대체했다.

군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종무식과 시무식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비대면방식인 영상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상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AI(조류인플루엔자)로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낸 군민, 향우, 공직자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토대로 2021년 새해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해가는 것은 물론 영암 100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두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특

별히 당부했다.

또한, 전동평 군수는 영상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 ▲고품질·고소득의 생명농업 집중 육성 ▲신성장동력인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 군정발전을 위한 6가지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군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1천여 공직자가 손을 맞잡고 군민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강진군 도암면 행복천사 기부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도암면 이장단에서는 올해 마지막 이장회의를 갖고 이장단 자체 회비를 정산하며 뜻깊은 기부를 결정했다.

강인성 이장단장, 박민오 총무 등 35개 마을 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해외연수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생긴 회비 여유분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천사기부금으로 2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23일에는 도암면에 소재한 도암교회(김옥진 목사)도 뜻깊은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고 작은 교회들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멈출 수 없다는 모든 교인들의 뜻을 모아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도암면 행복천사 기부릴레이는 지난 2020년까지 총 7천2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아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산옥 위원

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연말연시 기부금이 줄어든다는 보도를 접할 때면 마음이 안타깝지만 우리 도암면은 예외인 것 같다. 어려울수록 더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도암면민들이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암면은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2주만에 목표액 13백만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나눔과 배려로 아름다운 지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김대수 기자

## 무안출신 손수진 시인, 시사집 기증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 손수진 시인이 최근 발간한 시사집 ‘너는 꽃으로 피어라 나는 잎으로 피리니’ 300권과 그림책 ‘울어주는 은행나무와 소녀’ 등 330여권의 책을 나무늘보 작은도서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시사집에는 손수진 시인이 무안에 30여년을 살면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들과 자연과 먹거리, 사람, 역사적인 이야기를 서사화한 시 60여 편이 담겨있다. 그림책 ‘울어주는 은행나무와 소녀’는 무안 도시재생 소규모사업의 일환으로 손수진 시인이 그린 그림책 협동조합 대표로 재직 중 발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우리지역 작가의 작품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증받은 도서를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3개소에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안=서용운 기자

함평, 25개 분야 공모 선정

함평군은 2020년 중앙부처, 전라남도, 민간기관 등 25개 공모사업에 총 714억 원의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60억 원, 2019년 502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성과로, 지난 5월 군수 취임과 함께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 인센티브 지원제도 마련 등 공모 대응역량을 강화시킨 결과다.

주요 공모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신재생 에너지 응복합지원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는 전남도·광주전남 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고, 공모사업 사전검토 의무제 시행, 공모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공모 대응 체계를 강화해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함평=서용운 기자

목포문화예술회관 보수 공사

목포시가 내년 상반기 목포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공연장 음향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한다.

시는 23년 이상 노후화된 공연장 음향시설보수 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음향 시스템 운용과 최상의 음질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4월 30일 까지 공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마치고나면 풍부한 음향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며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공연단은 공사기간을 고려해 공연에 차질이 없기를 양해 바라며 더 좋은 환경과 시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대관 및 공사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예시설관리과(061-270-4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성태 기자

영암군  
YEONGAM-GUN

한 속  
벌상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